

디즈니, 한국 앞세워 아태지역 OTT 공략

APAC 콘텐츠 쇼케이스서 한국 작품 13편 발표
‘K-콘텐츠’ 총공력… 수요 많은 동남아 지역 공략

‘콘텐츠 제국’ 디즈니가 K-콘텐츠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아시아태평양 지역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시장 점령에 나선다.

월트디즈니컴퍼니는 지난달 30일과 이달 1일(현지시간)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에서 ‘디즈니 콘텐츠 쇼케이스 APAC(아시아태평양) 2022’ 행사를 열고 신작 라인업을 공개했다. 한국, 일본, 인도네시아,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언론 소속 기자 4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의 중심에는 한국이 놓여 있었다.

지난달 30일 열린 행사에서 발표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제작한

디즈니+ 신작 총 30편 중 한국 작품은 13편 (43.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전체 참석 매체를 대상으로 연 기자간담회 행사에서는 한국 오리지널 시리즈 ‘커넥트’와 ‘사랑이라 말해요’, 일본 오리지널 시리즈 ‘간니발’ 등 세 편을 소개해 한국 작품을 메인으로 내세웠다.

루크 강 월트디즈니컴퍼니 아태지역 총괄 사장은 지난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공개한 신작이 “흥행과 호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성공했다”며 한국 드라마 ‘빅 마우스’와 ‘사운드트랙 #1’, 한국 예능 ‘인더숲: 우정여행’을 예시로 언급했다.

기대작으로는 최민식 주연작 ‘카지노’, 강풀 작가의 만화를 원작으로 한 ‘무빙’을 꼽으며 한국 콘텐츠에 대한 기대를 가감 없이 드러냈다. 외신 또한 한국 콘텐츠에 남다른 관심을 보였다. 지난 1일 열린 ‘커넥트’와 ‘사랑이라 말해요’ 기자간담회에서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해외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디즈니가 한국 콘텐츠에 총력을 쏟는 큰 이유는 한국이 아닌 인도네시아 등 한국 콘텐츠 수요가 높은 동남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디즈니의 OTT 플랫폼인 디즈니+는 지난해 11월 한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지 1년여가 지났지만 성과 측면에서는 큰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반면 인도네시아에서는 올해 1분기 기준 전체 OTT 가입자 수의 약 30%를 차지하는 등 큰 성공을 거뒀는데 여기에는 한국 콘텐츠가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패드를’을 보면, ‘빅 마우스’, ‘닥터 로이어’, ‘링크: 먹고 사랑하라, 죽이게’, ‘금수저’ 등 한국 드라마 4편이 2022년 인도네시아 디즈니+ 인기 순위 10위 안에 들었다.

한 콘텐츠업계 관계자는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 지역에서는 자국 콘텐츠보다 한국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훨씬 크다”면서 “이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디즈니+를 비롯한 글로벌 OTT들이 한국에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통 노동을 예능으로 유쾌하게”

넷플릭스 ‘코리아 넘버원’
“어른들은 익숙해 반갑고
젊은 사람들은 신선 재미”

등근 통에 붙어있는 건조된 기와를 한 장씩 떼어내고, 길을 벗겨낸 모시품의 얇은 대를 입으로 물고 한올 한올 뽑아낸다.

전문분야를 조명한 다큐멘터리에서나 볼 법한 장면들이 예능에서 펼쳐진다. 넷플릭스 예능 ‘코리아 넘버원’은 예능인 유재석과 이광수, 배우신수 김연경이 함께 전통 노동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계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정효민·김인식 PD는 “노동을 예능으로 유쾌하게 풀어보고 싶었다”고 프로그램을 기획한 의도를 밝혔다.

두 사람이 예전에 함께 연출했던 tvN 예능 ‘일로 만난 사이’(2019)의 확장판이라고 했다. ‘일로 만난 사이’가 주로 일손이 부족한 농촌을 찾아다녔다면, ‘코리아

넘버원’은 전통을 지키는 장인들을 찾아간다.

김 PD는 “전작(‘일로 만난 사이’)에서 몸을 써서 노동하고 땀 흘리는 모습을 시청자들이 좋아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K팝이나 K드라마 인기를 보면 한국적인 게 주목받고 있는 시기여서 이런 부분을 프로그램에 접목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정 PD는 “요즘 ‘힙’하다는(인기 있는) 카페에 가면 나전칠기 장식 이 들어간 가구들이 있는데, 어렸을 때 시골집에 가면 있던 것들”이라며 “전통을 소재로 하면 어른들에게는 익숙하지만, 요즘엔 쉽게 접할 수 없어 반가움을, 젊은 세대에게는 신선함을 줄 수 있을 것 같았다”고 말했다.

8부작에는 음식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간장, 된장, 고추장 등 전통장, 고궁이나 한옥마을 등에서 볼 수 있는 기와, 할머니 집 장롱을 화려하게 장식한 나전칠기 등 익숙한 듯 낯선 전통 문화유산이 담겼다.

전통 기와를 만드는 국가 무형문



넷플릭스 예능 ‘코리아 넘버원’

연합뉴스

화재 제와장, 370년 이어온 종갓집 마당에 놓인 1200개 항아리, 얇디얇은 모시를 짜는 베틀 등이 나온다 보니 다큐멘터리 같기도 하지만, 유재석·이광수·김연경 세 사람이 장인들을 따라 노동을 하며 만들어내는 몸개그와 입담이 잔잔한 웃음을 만들어낸다.

전 세계에 서비스되는 넷플릭스 콘텐츠이다 보니 한국 전통을 세계에 알리는 효과도 있다. 다만 제작진은 이런 공익적 성격보다는 ‘웃음’에 초점을 둔 예능으로 출발한 프로그램이라고 밝혔다.

정 PD는 “처음부터 전통을 ‘알

린다’는 목표를 두지는 않았다. 그런 목표를 두면 더 보기 싫어지는 경향이 있다”며 “재미에 좀 더 중점을 뒀서 시청자들이 전통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장벽을 낮추고 싶었다”고 말했다.

김 PD도 “무언가를 설명하려 들기보다는 멤버들이 장인들의 전수 생처럼 열심히 일하는 과정을 유쾌하게 담으려고 했다”며 “장인들도 멤버들의 장난에 맞장구를 쳐주고, ‘먹고 살기 쉬운 게 없다’는 농담도 해준다 보니 분위기가 무겁지 않게 흘러갔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아리랑TV, ‘MAX 프로젝트’ 시연회.

연합뉴스

아리랑TV 방송에 융합 신기술 활용

아리랑TV ‘MAX 프로젝트’… 지난 2일 시연회

아리랑TV가 내년부터 메타버스, 인공지능(AI), 확장현실(XR)을 활용한 방송을 선보인다.

아리랑TV는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본사 사옥에서 융합기술을 방송에 실용화하는 ‘MAX(Metaverse·AI·XR) 프로젝트’ 시연회를 열었다.

내년부터 아리랑TV 문건영 앵커를 모델로 삼은 AI 앵커가 영어와 한국어로 스트레이트 뉴스, 주말 뉴스를 진행할 예정이고, 기자들은 다방음을 사용하지 않고도 AI 기술을 활용해 기자의 음성과 톤으로 취재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된다. 국내 최초로 뉴스 프로그램에 AI 뉴스 프롬프트도 도입한다. “MAX 프로젝트로 만들어내는 새로운 방송 제작 플랫폼과 서비스는 방송계의 혁신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스마트라이브 스튜디오도 새롭게 선보였다. 제작과 송출이 이원화됐던 기존 시스템을 통합해 고품질 생방송 영상을 시청자에게 바로 전달하고, 방송 장비를 자동화해서 인력 소모를 줄인다.

아리랑TV는 이날 시연회에서 K팝 생방송 프로그램을 가상 공간에 중계하는 아리랑 메타 방송국과 XR 기술을 활용한 가상 스튜디오도 선보였다.

MAX 프로젝트는 아리랑TV 기술연구소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기획해 15개 중소벤처, 협력사와 함께 추진한 프로젝트다.

아리랑TV 주동원 사장은 “MAX 프로젝트로 만들어내는 새로운 방송 제작 플랫폼과 서비스는 방송계의 혁신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정국 월드컵송 ‘드리머스’, 16강 진출에 역주행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정국이 부른 2022 카타르 월드컵 공식 사운드트랙 ‘드리머스’(Dreamers)가 우리나라의 기적 같은 16강 진출에 힘입어 차트 순위 역주행을 이뤄냈다.

3일 가요계에 따르면 ‘드리머스’는 이날 오후 7시 현재 국내 최대 음원 플랫폼 멜론의 ‘톱 100’ 차트에서 8위까지 치고 올라왔다. ‘드리머스’는 멜론 ‘톱 100’ 차트에서 이날 오전 1시 기준 35위였

지만, 우리나라가 포르투갈을 상대로 역전승을 거두고 16강 진출까지 극적으로 성공하면서 순위가 가파르게 상승했다. 이 노래는 이날 정오에는 10위로 ‘톱 10’에 안착하더니 9위에 이어 8위까지 기뒀했다.

청취자들은 멜론의 곡 댓글을 통해 “‘드리머스’를 들을 때마다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장면이 생각난다”거나 “16강 진출이 확정되면서 이 노래가 나오는데 전율이 느껴졌다”는 등 소감을 남겼다.

연합뉴스

KBS1	KBS2	MBC	JIBS/SBS	EBS1
6:00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인강극장 8:25 아침마당 9:30 KBS 뉴스 9:45 KBS 뉴스 제주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00 다큐 인사이트(재) 11: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6:10 동네 한 바퀴(재) 7:05 카타르 월드컵 스페셜 걸어서 세계속으로 7:35 굿모닝 카타르 8:00 해 별한 아침 M&W 9:00 KBS 아침 뉴스타임 9:20 내 눈에 공약지(재) 10:00 인간극장 스페셜 10:40 지구촌 뉴스 11:00 커튼콜(재)	6:00 MBC 뉴스투데이 1부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카타르월드컵 2022 하이라이트 모닝콜 8:30 다큐 M 스페셜 9:30 930 MBC 뉴스 9:45 기분 좋은 날 10:45 뽀빠이 좋아 11:15 헬로키즈 공학교실 11:30 와썹 프리매지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15 JIBS 아침뉴스 7:40 모닝와이드 3부 8:40 맨 인 블랙박스 스페셜 8:50 종은아침 9:55 SBS 10 뉴스 10:30 설마!는 오늘 11:00 꾸러기 탐구생활 11: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8:00 당동댕 유치원 9:20 빅 블루 9:40 우리집 유치원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3:50 특집 위대한 유산 15:35 레전드 히어로-삼국전 16:05 영어 스토리 타임 17:30 미니특공대 브이레인저스 18:00 생방송 뒤편지 해결단
12:00 KBS 뉴스 12 13:00 넷워킹 공동기획 문화스캐치 13:5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4:00 KBS 뉴스 14:10 보물섬(재) 15:00 2022 FIFA 카타르월드컵 하이라이트 16:00 사시간전 17:00 KBS 뉴스 5 17:30 탐나는 제주	12:15 영화가 좋다(재) 13:3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13: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15:00 KBS 뉴스타임 15:10 두리둥실 몽개공방(재) 15:30 TV 유치원 16:00 세상의 모든 다큐(재) 16:50 신상출시 편스토랑(재) 17:50 통통뉴스를 더	12:00 12 MBC 뉴스 12:25 MBC 희망 프로젝트 아프리카에 단비를 스페셜 13:25 헬로키즈 클로벌 동물 뉴스(재) 13:55 2시 뉴스 외전 15:55 기분 좋은 날(재) 16:55 5 MBC 뉴스 17:10 마녀의 게임(재) 17:45 금토드라마 금혼령 프리미어	12:00 SBS 12 뉴스 12:50 2022 카타르 월드컵 하이라이트 14:00 최강 1교시 15:00 네모세모 16:00 제주어 애니메이션 클럽시민 17:00 SBS 오뉴스 17:35 JIBS 저녁뉴스 17:50 순간표창 세상을 이룬일이(재)	KCTV 7:00 KCTV 뉴스 7:30 배워볼서 관광중국어 8:00 남만을 고향리 9:00 KCTV 뉴스 12:30 KCTV 시청자대상 13:10 KCTV 다큐스페셜 14:00 남만을 고향리 17:00 KCTV 뉴스 18:00 남만을 고향리 19:50 함께 배워요 한국어 21:00 KCTV 뉴스 제주 CBS FM 93.3MHz 90.9MHz 7:00 김탁구의 아침뉴스 7:20 김현정의 뉴스쇼 9:00 고대 청가에 김석훈입니다 12:00 CBS보통뉴스 14:05 송정미의 속복송 17:05 시사메가진 제주 18:00 CBS 저녁종합뉴스 18:25 한판소부 TBN제주교통 FM 105.5MHz 105.9MHz 7:00 출발! 제주대행진 9:00 스튜디오 1055 12:00 TBN 차차차 16:00 TBN 제주대행진 18:00 일리는 라디오 20:00 탐나는 가요
18:00 6시 내고향 19:00 KBS 뉴스 7 제주 19:40 우리말 겨루기 20:30 내 눈에 공약지 21:00 KBS 뉴스 9 21:35 KBS 뉴스 9 제주 22:00 가요무대 22:55 더 라이브 23:30 KBS 뉴스라인	18:30 2TV 생생정보 19:50 태풍의 신부 20:30 이별도 리콜이 되나요? 21:50 안정환의 하트 카타르 23:00 2022 FIFA 카타르월드컵 16강전 일본:크로아티아	18:05 TV매거진 타임라인 19:05 마녀의 게임 19:40 MBC 뉴스데스크 21:00 안정환의 하트 카타르 3부 22:30 금토드라마 금혼령 프리미어 22:50 카타르월드컵 2022 16강	18:50 생방송 투데이 19:50 SBS 8 뉴스 20:30 JIBS 8 뉴스 21:00 생활의 달인 22:00 치열입 23:10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전 일본: 크로아티아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KBS 064)740-7331 / ☎ MBC 064)740-2432 / ☎ JIBS 064)740-7800 / ☎ KCTV 064)741-7723 / ☎ 제주CBS 064)748-7400 / ☎ TBN제주교통방송 064)717-8114				

오늘의 운세

5일

김종상 지단(組田) 작명역학 원장

경기도 평곡원 교수(010-5233-6136)

36년 몸이 나른해진다 건강관리에 투자하라. 48년 이사 변동이 생기거나 축하해 줄 일이 있다. 60년 과감한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고 실천하는 자신감과 자력도 있다. 72년 자신감의 용기가 만능으로 보일 수 있으니 대인관계에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84년 불협화음이 생길 소지가 크니 내 주장은 적게 하라.

37년 건강망치 오거나 한 발을 또 하게 된다. 49년 이사 이동운이 있고 직업에 변화도 생긴다. 61년 하고자 하는 일에 기쁜 소식과 귀인을 접하니 신중하라. 73년 못 하지 않은 소식을 접하거나 상가, 문상 갈 일이 생기게 된다. 85년 잊사람의 충고와 있었던 마음에 담아 실천하라. 기회를 만드는 지혜가 필요하다.

38년 이웃과 기쁨이나 슬픔을 나누게 된다. 50년 자식이나 업무추진에 갑작스런 변화나 충격이 올 수 있다. 62년 친구, 동료 동업자에 의한 뜻하지 않는 지출이 생긴다. 74년 기혼자는 임신이 가능하기도 하고 미혼자는 좋은소식이 온다. 86년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데 투자를 하거나 준비하는데 금전 지출.

39년 나쁜 소식을 접할 수 있으나 시간이 해결할 문제이니 너무 신경쓰지 마라. 51년 용돈이 생기거나 재물 운이 길다. 63년 조금함과 경제성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으니 포용력 있는 배려심이 요구된다. 75년 구설 또는 소송건이 생기니 언행주의. 87년 바쁘고 분주하나 마음에 여유가 넘친다. 이성관계 길.

40년 가족이나 친지들과 외식이나 음식을 나누며 대화를 즐긴다. 52년 신경이 안정되지 못하고 작은 일에 흥분하게 되니 마음에 평화를 갖자. 64년 불발적인 뇌물에는 유혹 당하지 마라. 구설이 따른다. 76년 직장인은 정찬이 있고 실업자는 회소식이 있다. 88년 애인 또는 친구와의 갈등이 오면 관용이 필요하다.

41년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으니 투기는 중지하는 것이 좋다. 53년 신용은 대인관계에서부터 출발한다. 65년 고만하단 문제가 해결되는 기쁨이 있으며 활동력이 늘어난다. 77년 사람은 행운을 타고 희망을 준다. 결혼 운이며 득자의 기쁨이 있다. 89년 취직 또는 직장에서의 연락이 오거나 이성이 생기기도.

42년 손재수가 있으니 도난주의. 분실주의. 54년 피부 미용법 사후나 호조. 문서상 이익이 있다. 66년 관제나 구설수 주의. 안전사고 유의하고 언쟁은 자제하라. 78년 기혼자는 가정에서 불화가, 미혼자는 이성간 다툼이 있다. 90년 현상과 만족하라. 과욕이 헛된 꿈이 될 수 있으며 현실을 가져온다.

43년 과로 또는 음주로 건강에 적신호가 오니 건강이나 신장이 약해진다. 55년 사업을 정리하거나 매도 하려고 한다. 67년 관청의 인허가가 있으며 문서관련 할 한 작용이 있다. 79년 직장인은 인기가 있고 인정받는다. 금전적으로 지출이 증가. 91년 친구에 관한 기쁜 소식이나 방문이 있다.

44년 배반·배신이 따르거나 구설수가 따르니 동업은 자중하는게 좋다. 56년 남과 더불어 의논 또는 협조할 일이 발생한다. 68년 과도한 자신감이 때론 갈등을 낳기도 하니 너무 튀는 행동은 거슬린다. 80년 영업에 이익이 있고 교제가 생기기도 한다. 친구가 생기기도 한다. 92년 연전은 기금적 자제해야 한다.

45년 감언이설이나 말쑥한 유혹을 경계하라. 독소가 있으며 해롭다 있다. 57년 안전사고를 주의하라. 관제구설수가 있다. 69년 자녀의 일이 생기거나 문서 변동이 생긴다. 81년 집중력 있는 시간대에 집중하고 휴식도 필요한 만큼 하라. 93년 넘치는 것은 부족함보다 못하니 여유와 과욕을 버리는 연습을 하라.

46년 세무감사, 위생검열이 있을 수 있다. 대인관계 언행주의. 58년 부족함을 채워주는 뜻밖에 귀인을 만나거나 행운이 따른다. 70년 중간역할을 잘하면 인정받고 승진 기회도 찾아온다. 82년 경쟁이나 다툼에 내가 손해본다.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마라. 94년 분열의 소지가 있으니 문서 이동, 변동은 신중히.

47년 명예 또는 기쁨이 생기고 이익이 증가하니 몸을 아끼지 마라. 59년 자녀문제도 고민할 일이 생기니 주변에 도움을 청하라. 71년 사회생활은 좋으나 가정적 근심수가 온다. 귀가는 늦지마라. 83년 부모님 걱정이 앞서니 편안하시도록 전화를 드려라. 95년 서투르지 말고 한번 더 생각하는 신중함이 요구된다.